



격변하는 산업보건환경에 대한 인식과 새로운 모색

독자들

중 상당수는 고개를 가우뚱 할 것이다. 정치판 이야기면 몰라도, 산업보건분야는 이렇게 평은 한데 무슨 소리냐고. 저자는 중금속 중독학을 주전공으로 삼고있는 전통적인 산업의학의 부류에 속해 있지만, 격변의 조짐을 누구보다도 실감하고 있다.

첫째, 직업병 패턴의 변화를 보자. 수년 전 만 해도 국제학회에 참가하거나 국제 저널에서 근골격계질환이나 스트레스 관련 질환이 주종을 이루는 것을 보았지만, 외국의 이야기로만 생각해 왔지, 우리의 문제로서 실감하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불과 수 년 만에 그런 현상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다. 1996년에는 진폐나 소음성난청과 같은 전형적인 직업병자수가 전체 직업병자의 61 %를 차지했었으나, 뇌·심혈관질환자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1999년에는 43 %로 줄었다. 2000년 이후부터 근골격계질환자수가 늘면서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화되어 2003년에는 14 %에 불과하게 되었다. 직무스트레스 관련질환도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둘째, 산업보건사업의 대상도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산업보건 대상 사업장도 전형적인 제조업으로부터 서비스업, 유통업 등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2004년 3월 현재 3차 산업 72.7 % 차지), 업무수행의 효율성 위에서 기업의 규모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2002년 현재 50인 미만 기업체수 99.0 % 차지). 대상 근로자도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과 같은 비정형 근로자(1999년 6월 현재 51.3 %), 고령노동자(2004년 3월 현재, 50세 이상 취업자 중 구성비율 24.5 %), 여성근로자(2004년 3월 현재, 여성인구 중 경제활동 참가율 50.3 %, 취업자 중 구성비율 41.4 %), 외국인 근로자 등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재택근무 등 재량형 노동 등도 서서히 늘고 있다. 또, 같은 업종이라도, 사업장에 따라 매우 다양한 산업보건문제를 갖



김 양 호

울산대 의대
산업·환경의학교실 주임교수

고 있으며, 그것마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셋째, 접근방법론의 변화이다. 산업보건전문가가 중심이 되고, 노사는 객체에 불과하였던 산업보건접근법이 산업보건의 당사자인 노사가 중심이 되고, 전문가는 조언을 하는 역할로 변화하고 있다. 일반 보건의료에서도 생활습관 관련 질환들이 현대질병의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생활습관개선을 환자 스스로 하도록 유도하고, 격려하며, 의사는 그에 대한 조력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게 되었다. 의과대학 교육에서도, 이전처럼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즉, 문제를 풀어나가는 접근법이 현대에 들어오면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산업보건에서도 사업장의 노사가 중심이 되도록 하고, 노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옆에서 전문가적인 조력을 하는 것이 최근의 국제적 산업보건 접근방법이고, 그 효율성도 증명되어 있다.

이러한 주변 환경의 변화 속에 우리 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산업보건활동을 돌이켜 보자. 산업보건사업의 핵심은 여전히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이다. 그 수행방법에 있어서도, 노사는 시혜의 대상일 뿐, 주체적 참가가 요구되지 않는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직업병발생 양태의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및 취업형태의 다양화 등 산업보건현장의 요구가 다양화되고 있고, 그 접근방법론도 변화하는 가운데서, 전형적인 제조업에서의 재래형 직업병을 주 대상으로 했던 획일적인 현행제도(특수건강진단제도 및 작업환경측정제도)는 그 역할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물론 현행제도가 고도경제성장시기에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자기 역할이 서서히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전에도 일부 앞서가는 학자들이 산업보건의 이상적인 모습을 주장하면서, 기존 특수건강진단제도의 철폐와 새로운 산업보건사업의 모색이라는 주장을 편 바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 많은 산업보건종사자들은 한국의 현실을 모르는 현학적인 주장으로 비판하면서 콧방귀를 뀌었다. 그러나 이제는 산업보건의 이상적인 구현을 위하여가 아니라, 오히려, 산업보건의 살아남기 위하여 자기 변신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가 오고 있다. 서서히 그러나 도도한 흐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필자는 실감하고 있다. 우리 모두 잠시 마음을 비우고 일상적이고 틀에 박힌 기존의 산업보건활동에서 벗어나, 주위를 살펴보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새로운 산업보건사업을 모색하여야 하고, 어떻게 변화하여야 하는지를 그리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